

張從正 吐法の 경험례

김 의 태, 차 응 석, 김 남 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bstract

Experience in Jang Jong jeong's Vomiting Treatment

Kim Eui tae, Kim Nam il***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Department of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Kyunghee Universit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epartment of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

Jang Jong jeong thought that, because all diseases come from miasma, for treating diseases, it is important to attack or remove miasma infiltrating into the body. Thus, he treated diseases using three methods, namely, vomiting against miasma on the top, sweating against miasma on the surface, and diarrhea against miasma on the bottom.

Among them, vomiting is rarely used in contemporary Oriental medicine, but still one of major disease treatment methods.

Vomiting is quite meaningful in today's clinics and particularly effective for acute diseases, the miasma of which is in the upper chest. According to the present researcher's experiences, it is effective in cases that the pathological symptoms are observed in the upper chest such as early stroke, dyspepsia, chest congestion and congestion heat.

For vomiting, the researcher applied Dokseongsan, Samseongsan, Gwachesan, Gangyeomtang, Bangpungdongseongsan, etc.

Dokseongsan was used for vomiting in a cool way, and Samseongsan and Gwachesan were used for vomiting in a warm way. Bangpungdongseongsan was used when inner heat was choked up by the attack of external miasma and when the pathological symptoms of Bangpungdongseongsan were observed.

1. 서론

張從正은 字는 子和, 號는 戴人이며, 宋金시대에 睢州 考城(지금의 河南省 蘭考縣)사람으로 宛丘에 오랫동안 살았기에 또한 宛丘子라고도 불린다.¹⁾ 金나라의 正隆 元年에서 正大 5년(서기1156-1228년)까지 생존하였다. 그는 吐汗下 三法으로 邪氣를 몰아내는 치료법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후세인들을 그를 “攻下派”의 창시자라고 불렀다. 그의 저술인 『儒門事親』은 그가 草稿를 쓰고 麻知幾와 常仲明의 수정과 보충을 거쳐 완성된 것이다.

그는 많은 종류의 질병을 風寒暑濕燥火 등 發病因素별로 六門으로 나누어 치료 시에 吐汗下 三法을 위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張從正의 학설이 형성되게 된 데에는, 첫째, 당시의 의학계에 溫補를 좋아하는 경향, 둘째, 당시에 접촉했던 환자가 대부분 貧苦한 대중들로 그 질병의 속성이 實證, 熱證이 많았다는 것, 셋째, 劉河間의 火熱學說의 영향 등이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張從正의 학설의 주요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릇 病이란 원래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혹 밖에서 들어오거나 혹은 속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모두 邪氣로 되는 것이다. 邪氣가 몸에 침범한 것을 빨리 공격하거나 빨리 없애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 邪氣를 잡아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다.”²⁾ 둘째, 上에 있는 邪氣는 吐法, 表에 있는 邪氣는 汗法, 下에 있는 邪氣는 下法을 사용한다. 셋째, 吐汗下 法은 모두 禁忌證이 있으므로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설사시키거나 땀을 내어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도 하법과 한법은 나은 편이다. 토하는 방법을 치료방편으로 제시하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척 당황스러워 한다. 吐汗下 삼법을 치료의 칠팔할을 사용하였다는 張從正의 치료가 쉽지 않았음을 임상에서 부딪히면서 그의 醫論의 입론과정이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본 연구자가 석사논문으로 “東醫寶鑑”에 인용된 張從正의 醫論研究”에서 張從正의 醫論이 『東醫寶鑑』의 醫論에 어떻게 반영되어있는 지를 밝히었다. 그

1) 맹웅재·김남일 등,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서울, 2001.

2) “夫病之一物非人身素有之也, 或自外而入, 或由內而生 皆邪氣也. 邪氣加諸身 速攻之可也, 速去之可也. 攬而留之雖愚夫愚婦皆知其不可也.” 『儒門事親卷二·汗下吐三法該盡治病證十三』

연구에 이어서 張從正의 醫論이 韓國 韓醫學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와 현대 韓國 韓醫學에 張從正의 醫論이 끼친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런 연구 중에 張從正醫論에 따른 吐汗下 三法을 실천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기에 이 중에 吐法부분을 발표하고자 한다.

2. 토법개요

張從正은 病이 모두 邪氣에 의해 發生하는 것이므로 邪氣가 몸에 침범한 것을 빨리 공격하거나 빨리 없애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上에 있는 邪氣는 吐法, 表에 있는 邪氣는 汗法, 下에 있는 邪氣는 下法을 즉 吐汗下 三法을 사용하여 질병을 치료하였다.

본 연구자가 임상에서 吐法을 사용했던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 이 원칙이 吐法을 사용할 수 있는 변증의 포인트이자, 吐法을 사용해야 더욱 잘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다.

첫째, 病이 上焦에 있을 때에는 吐法을 사용한다.

머리와 눈이 인체의 상부에 있어 吐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몸에서는 胸부위가 상부에 속하므로 胸에 病이 들은 것들도 吐法으로 치유하고 있다. “胸中有痰實”³⁾, “心火”가 오래되어 “熱痰”이 된 경우⁴⁾ 등이 그것이다. 인체의 上部에 病이 든 것은 吐法으로 치료하는 것이 吐法 운용의 기본 원칙이 된다.

둘째, 吐하려하는 症에는 吐法을 사용한다.

關格을 吐法으로 치료하고 있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膈中에 무엇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올리려 해도 나오지 않고 내리려 해도 내려가지 않으며 먹으려 하여도 넘여가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氣의 橫格이라고 말한다.”⁵⁾ 이렇듯 關格證처럼 吐하려 하는 證에는 吐法을 사용한다. 心痛을 앓는 환자가 술을 먹고 吐한 후에 안정되는 것을 보고 吐法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또한 어떤 부인이 胸膈이 편안치 않으면서 입에서 침과 거품이 나오는 병에 걸렸는데, 이를 吐法을 사용하여 치유하였다. 또한 편의 임상례에서는

3) 『東醫寶鑑·內景篇·夢·淫邪發夢』중 張從正 醫論 인용부분에서 나오며 原文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一婦人 常夢與鬼神交 驚怕異常 及見神堂陰司舟楫橋梁 如此十五年 竟無娠諸治無效 戴人曰 陽火盛于上 陰水盛于下 見鬼神者 陰之靈 神堂者陰之所 舟楫橋梁水之用也 診之兩手 寸脉皆沈而伏 知其胸中有痰實也 凡三涌三泄三汗 不旬日而無夢 一月而有娠 <子和>”

4) 『東醫寶鑑·內景篇·言語門·笑』治法에서 張從正 醫論 인용부분에서 나오며 原文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一婦人 病喜笑不已 已半年家治無效 戴人曰 此易治也 滄鹽成塊者二兩餘 火煨令赤 放冷研細 河水一大椀同煎 溫服三次 以銀股探喉 吐出熱痰四五升 次服黃連解毒湯 不數日而笑定 內經曰 神有餘則笑不休 神者心火是也 火得風而焰 故笑之象也 五行之中惟火有笑 嘗治一老人 笑不休 口流涎 以黃連解毒湯(方見寒門)加半夏竹葉竹瀝薑汁 服之笑止矣 <子和>”

5) “關格者謂膈中覺有所碍欲升不升欲降不降欲食不食此謂氣之橫格也<醫鑑>” 『東醫寶鑑·內景篇·小便門·關格證』

“한 농부가 10여 년 동안 留飲으로 신물을 토했는데 약과 침, 뜸 등이 모두 효과가 없었다. 戴人이 苦劑를 써서 토하게 하였다. 아고 같은 痰涎을 2-3升 토하고 나서 곧 나았다.”고 하였다. 모두 토하려 하는 病症에 吐法을 사용하여 치료한 것이다.

셋째, 상부의 津液을 맑게 해야 할 경우에 吐法을 사용한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므로 반드시 먼저 위에 있는 근원을 없애야 한다고 하면서 吐法을 사용하여 부인의 白帶下를 치료하고 있다. 膏淋(白淫)을 吐法으로 치료하고 있다. 이는 아래의 흐려진 물을 치료하기 위해 우선 上源을 맑게 하려는 것으로서 吐法을 사용하여 上焦를 치료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임상경험은 張從正의 그 것처럼 다양하지도 않으며 질적 수준도 떨어지지만 작은 결과가 있어 발표하고자 한다.

獨聖散, 三聖散, 瓜蒂散, 薑鹽湯, 防風通聖散등의 吐法방제를 임상에서 응용하였다.

그 중에서 獨聖散과 三聖散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散劑들은 吐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寒熱의 차이를 두고 처방하였다. 辛涼한 瓜蒂로 구성된 獨聖散과 瓜蒂에 辛溫한 약제인 獨活, 藜蘆가 들어가는 것이 三聖散이다. 辛涼한 방법의 吐法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獨聖散을 사용하였으며 辛溫한 방법의 吐法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三聖散, 瓜蒂散을 사용하였다. 防風通聖散은 外邪의 공격을 받아 內熱이 鬱結되어 있는 경우와 防風通聖散의 病證을 갖고 있는 정황에 사용하였다.

또한 食滯로 내원한 환자 중에 吐法을 사용해야 할 경우 물 한 컵에 生薑 열 쪽 정도와 소금 반 숟가락 정도를 믹서기로 혼합한 뒤에 이 혼합물(薑鹽湯)로 吐法을 시행하고 오라고 한 뒤에 치료한 경우도 있다.

吐法을 사용하는 데에는 다른 치료방법보다 더욱 신중을 기하였다. 胃氣가 약한 경우, 血虛한 경우, 老弱者의 경우이다.

3. 獨聖散 임상

3-1. 獨聖散의 張從正 의안

■ 獨聖散

<처방>

瓜蒂 (不以多少)

右爲細末 每服一錢或二錢 薑汁調服之 脇痛加全蝎 頭痛鬱金

과체 (많고 적음이 구애 없이)

오른쪽 약을 곱게 가루내어 매번 한두 돈씩 복용하되, 제즙에 섞어 복용한다. 脇痛에는 전갈을 더하고, 頭痛에는 울금을 더한다.

<의안>

勞嗽咯血四十二 / 卷之六 熱形

瀧陽劉氏一男子 年二十餘歲 病勞嗽咯血 吐唾粘臭不可聞 秋冬少緩 春夏則甚 寒熱往來 日晡發作 狀如瘡癩 癢汗如水 累服麻黃根敗蒲扇止汗 汗自若也 又服寧神散寧肺散止嗽 嗽自若也 戴人 先以獨聖散 涌其痰 狀如雞黃 汗隨涌出 昏憤三日不省 時時飲以涼水 精神稍開 飲食加進 又與人參半夏丸 桂苓甘露散服之 不經數日乃愈

수양(瀧陽) 유씨의 아들이 나이가 20여세로, 勞嗽와 咯血을 앓아 끈적이고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것을 뱉어냈다. 가을 겨울에는 조금 좋아졌다가 봄과 여름이 되면 심해지는데, 추웠다 더웠다하고 해 지울뉘에 발작하는데 그 모습이 瘡癩과 같았다. 자면서 흘리는 땀이 물과 같아 麻黃根·敗蒲扇을 여러 번 복용하여 땀을 그치게 하였으나 땀은 그대로였다. 또 寧神散(寧神散)을 복용하여 가래 끓는 기침을 멈추고자 하였으나 그대로였다. 戴人이 먼저 獨聖散을 사용하여 그 담을 토하게 하였는데, 그 형상이 계란 노른자와 같았고 땀도 토하는 것을 따라 나왔다. (환자가) 혼절하여 3일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는데, 때때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였더니 정신이 조금 깨어났으며 음식 먹는 적이 늘어났다. 人參半夏丸⁸⁾과 桂苓甘露散⁹⁾을 복용시켰더니 수일이 되지 않아 나왔다.

<해설>

병자는 20대 남자로서 기침을 하면서 더러운 가래를 뱉어냈는데, 피도 섞여 있었으며 寒熱往來와 盜汗의 증상을 겸하고 있었다. 麻黃根·敗蒲扇 등으로 止汗시키고, 寧神散·寧肺散으로 기침을 멈추게 하는 등, 증상에 따라 일반적인 치료법을 행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 환자의 여러 증상들은 상부 痰涎이 응체되어 생겨난 것으로, 張從正은 獨聖散을 이용하여 痰을 걷어올려 치료하였다. 張從正이 말하는 吐法の 大法은 邪氣가 인체의 上部에 있을 때 사용한다는 것으로, 『內經』의 ‘其高者 因而越之’(『素問·陰陽應象大論』), ‘木鬱達之’(『素問·六元正紀大論』)의 의학적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上實證을 가지고 있는 이 환자는 寸脈이 浮滑하고¹⁰⁾, 가슴이 답답한 등의 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환자는 吐法을 시행한 후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였는데, 시원한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렸다. 張從正은 吐法을 시행하다가 환자가 혼절하더라도 놀라 의심하지 말라¹¹⁾고 하였고, 머리가 어

6) 『儒門事親 卷之十二 濕門』 寧神散 治嗽 御米殼二兩蜜炙 人參 苦苧藤 已上各一兩 右爲末入烏梅 同煎三五沸 去滓稍熱服食後

7) 『儒門事親 卷之十二 濕門』 寧肺散 御米殼炒去穢 甘草 乾薑 當歸 白礬 陳皮 已上各一兩 右爲末煎 薑汁調三錢

8) 『儒門事親 卷之十二 風門』 搜風丸 (一名人參半夏丸) 人參 茯苓 南星 已上各半兩 半夏 乾生薑 白礬 生凝水石 已上各一兩 蛤粉二兩 薄荷半兩 藿香 右爲細末 與藏用丸末各中停 水丸 如菟豆大 每服三十九生薑湯送下

9) 『儒門事親 卷之十二 風門』 桂苓甘露散 官桂半兩 人參 藿香 已上各半兩 茯苓 白朮 甘草 葛根 澤瀉 石膏 寒水石 已上各一兩 滑石二兩 木香一分 右爲細末 每服三錢 白湯點下 新水或生薑湯亦可用之

10) 『儒門事親 卷之四 解利傷寒七』 傷寒寸口脈浮滑者可用 雜病寸口脈沉者可吐

지러운 경우 냉수를 마시게 하면 풀린다¹²⁾고 하였다. 갈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얼음물 새로 떠온 물 오이, 배, 감과 차가운 것¹³⁾을 준다고 하였다. 이 환자와 같이 吐法을 시행하다가 혼절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며, 이 때 시원한 물을 주는 것이 대처법임을 알 수 있다.

人參半夏丸은 搜風丸으로 風病에, 桂苓甘露散은 暑病에 사용되는 약으로서, 張從正은 吐法을 시행한 이후에 조리하는 약들로서 이들 처방을 사용하여 남아있는 邪氣를 제거하여 병의 재발을 막고 회복을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3-2. 獨聖散의 경험례

獨聖散 경험례 1

姓名	고 00
性別	남
年齡	49
職業	경찰
主訴症	5년 전부터 평소 식사 후 음식의 일부가 시큼하게 역류한다. 음식이 명치부위에 걸리는 느낌이 든다. 경찰업무를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脉	침지, 촌구맥활
大便	뭉은 편이다.
治法	獨聖散으로 吐法.
治療經過	吐法 2차례 한 후에 속이 편해지고 촌구맥이 편해져서 吐法을 중단하였다.
治療說明	시큼한 음식물을 역류하는 것은 肝木의 맛이 역류하는 것이다. 화가 성하여 金을 억제하면 金이 木을 억제하지 못하여 肝木이 盛하여지므로 시게 된다. 간에 화가 성하여 酸味の 역류가 있다. 흉격의 열을 식혀서 아래로 내리는 돌아가는 방법보다 빠른 길인 吐法을 사용하여 병소를 제거하는 것이 보다 수월 할 것이다. 그리하여 辛涼한 약제인 瓜蒂를 사용하여 吐法을 사용하였다. 獨聖散 1돈 1포와 1돈반 1포 모두 2포를 처방하여 아침식사를 하지 말고 오전에 1돈짜리 1포를 복용한 후에 토하도록 하고 다음 날 같은 시간 1돈반 1포를 복용한 후에 吐法을 하도록 하였다. 그 후 음식을 먹어도 역류하지 않고 음식이 걸리는 느낌도 없어졌다.

獨聖散 경험례 2

姓名	윤 00
性別	여

11) 『儒門事親 卷之二 凡在上者皆可吐式十四』吐至昏眩 慎勿驚疑

12) 『儒門事親 卷之二 凡在上者皆可吐式十四』如發頭眩 可飲氷水立解 如無氷時 新汲水亦可

13) 『儒門事親 卷之二 凡在上者皆可吐式十四』如覺渴者 氷水 新水 瓜 梨 柿 及涼物 皆不禁

14) “內經曰 其高者因而越之 越謂吐也” 『東醫寶鑑·雜病篇·吐門·病在上宜吐』

年 齡	65
職 業	주부
主 訴 症	구역, 상열, 흉만, 흉민, 등이 10여년이 되었다. 특히 묽은 가래가 계속 올라와 수시로 뱉어 내고 토해 내기도 한다.
脉	침활, 지
胃氣	식사는 잘 하지만 자주 속이 불편하다.
大便	미약한 변비
小便	잘 본다.
睡眠	간혹 불면이 있다.
口舌	舌赤
治法	獨聖散으로 吐法.
治療經過	10여 차례 토한 후에 가래와 구역감과, 흉만 등은 경감되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도수환으로 下法을 사용하였다.
治療說明	『東醫寶鑑·雜病篇·吐門·病在上宜吐』에서는 “『內經』에 ‘위에 있는 病은 끌어서 넘겨야 한다.’고 써어 있다. 넘긴다는 것은 吐하게 한다는 것이다.” ¹⁴⁾ 라고 하였다. 『儒門事親 卷十一 論火熱二門』 등 에서도 『內經』의 상기조문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상기 환자는 병이 비록 오래되었지만 痰飲이 상초에 머물러 있으므로 吐法을 사용하였다.

4. 三聖散 임상

4-1. 三聖散 張從正 의안

■ 三聖散

<처방>

防風三兩(去蘆) 瓜蒂三兩(剝淨研破 以紙捲定 連紙剉細 去紙 用籠羅子羅過 另放末 將滓炒微黃 次入末一處同煎黃用) 藜蘆(去苗及心 加減用之 或一兩 或半兩 或一分)

右各爲齏末 每服約半兩 以薑汁三茶盞 先用二盞煎三五沸 去薑汁 次入一盞 煎至三沸 却將原二盞 同一處熬二沸 去滓澄清 放溫 徐徐服之 不必盡劑 以吐爲度

방풍 세냥(노두를 제거한 것), 과체 세냥(벗겨 멧돌에 갈아 종이로 말아 고정하고 종이까지 가늘게 썰어 종이를 제거하고, 성근 채로 걸러서 내린 가루를 따로 둔다. 채 위에 찌꺼기를 볶아 조금 누렇게 하고 다시 채로 내린 가루를 함께 넣고 볶아 함께 볶아 누렇게 하여 쓴다), 여로(씩과 심을 제거하고 가감하여 사용한다. 흑 한 냥, 흑 반 냥, 흑 한 푼을 사용한다)

오른쪽을 각각 거칠게 가루내어 매번 약 반량을 먹는데, 제즙 세 찻잔에 먼저 두 잔을 사용하여

3~5번 끓여 제즙을 따라내고, 다시 한 잔을 넣고 3번 끓여, 원래 따라둔 두 잔의 것과 함께 한곳에 넣고 볶아 2번 끓게 하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맑은 것을 따뜻하게 하여 천천히 복용한다. 한제를 다 먹을 필요는 없고 토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의안>

冷疾一百二十八 / 卷之八 內積形

戴人過譙都營中飲會 隣席有一卒說出妻事 戴人問其故 答曰吾婦爲室女時 心下有冷積如覆杯 按之如水聲 以熱手熨之如水 娶來已十五年矣 恐斷我嗣 是故棄之 戴人曰 公勿黜也 如用吾藥 病可除孕可得 卒從之 戴人診其脈沈而遲 尺脈洪大而有力量 非無子之候也 可不踰年而孕 其良人笑曰試之 先以三聖散吐涎一斗 心下平軟 次服白朮調中湯五苓散 後以四物湯和之 不再月 氣血合度 數月而娠二子 戴人常曰用吾此法 無不子之婦 此言不誣.

戴인이 초도(譙都) 진영을 지나다가 술자리 참석하였는데 곁에 앉은 한 병졸이 아내를 내쫓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戴인이 그 까닭을 묻자 대답하기를, ‘내 부인은 처녀 때부터 心下에 차가운 積이 얹어놓은 술잔과 같았는데, 그것을 누르면 물소리가 나고, 뜨거운 손으로 그것을 만져도 얼음 같았습니다. 장가 간지가 이미 15년이 지났는데, 후손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이 때문에 아내를 내치려고 합니다.’고 하였다. 戴인이 말하기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의 약을 사용한다면 병은 없어지고 회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병졸이 이 말을 따랐다. 戴인이 그 (부인의) 맥을 진찰해 보니 沈하면서 遲하였는데, 尺脈은 洪大하면서 힘이 있으니 자식이 없을 증후가 아니었다. (대인이) ‘몇년 되지 않아 임신할 수 있습니다.’고 하자 병졸이 웃으면서 시혈해 보자고 하였다. 먼저 三聖散으로 묽은 침[涎]을 한 말 토하게 하니 心下가 평평하고 부드러워졌고, 다음으로 白朮調中湯¹⁵⁾·五苓散을 복용시키고, 후에 四物湯으로 조리시켰다. 두 달이 되지 않아 氣血이 법도에 부합하여 수 개월이 되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戴인이 항상 말하기를 ‘나의 이 방법으로 자식 없는 부인이 없었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헛소리가 아니다.

<해설>

병졸의 부인은 일종의 冷積을 앓고 있었는데, 처녀때부터 心下에 積이 있어 누르면 물소리가 있고, 매우 차가웠다. 이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없었다.

부인은 脾積인 痞氣와 유사한 증후를 보이고 있다.¹⁶⁾ 이 적취로 인해 氣血의 순환이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신은 여성이 정상적인 월경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설명의 증상들을 보면 心火가 하강하지 못하여 월경이 잘 나오지 않는 등 평소 비정상적인 증상을 보였을 것이다.

15) 『儒門事親 卷之十二 濕門』 白朮調中湯 白朮 茯苓 橘皮去白 澤瀉 已上各半兩 甘草一兩 乾薑炒 官桂 砂仁 藿香 已上各一分 右爲末 白湯化蜜少許 調下二錢無時 煉蜜每兩作十丸 名曰白朮調中丸

16) 『難經 五十六難』 脾之積, 名曰痞氣, 在胃脘, 覆大如盤. 久不癒, 令人四肢不收, 發黃疸, 飲食不爲肌膚, 以冬壬癸日得之.

張從正은 腎·命門과 子宮을 의미하는 尺脈의 맥이 힘이 있음을 보고 子宮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三聖散으로 痰涎을 토하게 하여 痞氣를 上部로 제거하고 아울러 白朮調中湯五苓散·四物湯 등으로 조리하였다. 三聖散으로 吐涎한 것은 痞氣를 풀어 기혈이 순행될 수 있게 하였고, 白朮調中湯五苓散 등으로 조리하였으며, 부인인 점을 감안하여 사물탕을 투여하였다.

4-2. 三聖散 경험례

三聖散 경험례 1

姓名	김 00
性別	여
年齡	60
職業	교회업무
主訴症	식체 3일후 가슴이 그득하고, 현훈이 심함.
脉	上焦 實
胃氣	평소 잘 체한다.
形象	面赤, 기실
治法	三聖散으로 吐法을 사용하였다.
治療經過	吐法을 사용한 후에 속이 편해지고, 현훈이 없어짐, 이후 가미육군자탕으로 조리하여 회복하였다.
治療說明	『東醫寶鑑·雜病篇·內傷門·內傷飲食宜吐』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상복부에 남아있으면 吐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있다. 음식으로 체한지 3일이 지났지만 아직 맥이 상초에서 실하므로(즉 寸脈이 실한 것) 식적이 상초에 있으므로 吐法을 사용 할 수 있다. 상기환자는 면백하고, 신냉하였으므로 辛溫한 약제로 구성된 三聖散을 사용하였다. 吐法을 사용한 후에 병증이 좋아졌고, 기력만이 약하여 가미육군자탕으로 조리하였다.

三聖散 경험례 2

姓名	이 00
性別	여
年齡	47
職業	주부
主訴症	식체 후 현훈, 흉만, 위가 안 움직이는 느낌.
脉	상초실
胃氣	잡은 헛기,
形象	중기부족, 혈허

治法	三聖散吐法
治療經過	吐法 1차례 시행 후 속이 편해지고 진맥이 상초실이 없어져서 吐法을 중단하고 향사평위산으로 조리하였다.

三聖散 경험례 3

姓名	김 00
性別	여
年齡	53
職業	주부
主訴症	10일전부터 현훈, 흉만, 소화불량, 조열
脉	상초실활, 지
胃氣	미약
形象	창백, 증기허
治法	三聖散으로 吐法 시행 후 조리함.
治療經過	吐法시행 후 현훈, 흉만, 소화불량이 좋아졌다.
治療說明	心火가 오래되어 鬱熱이 된 病證이다. 병소도 胸에 있으므로 인체의 상부에 있는 병으로 보고 吐法을 사용하였다.

三聖散 경험례 4

姓名	김 00
性別	여
年齡	50
職業	교회업무
主訴症	5개월 전부터 우측수족마목, 쓰러질 정도의 현훈, 두통, 흉만, 중풍 치료 등을 받았으나 별 차도 없었다.
脉	침지, 상초활
胃氣	미약
形象	창백, 기실, 기울
治法	三聖散으로 吐法시행 후 조리함.
治療經過	吐法시행 후 현훈, 흉만이 좋아지고 식욕이 증진되고 마목감이 덜해졌다.
治療說明	비록 병증이 극심하여 쓰러질 정도이지만 식사후에 병증이 심해지는 것은 식적 때 문이다. 비록 병증이 오래되었지만 상초맥이 실하므로 병소가 아직 상초에 있다는 증거이다. 상초병이므로 토법을 사용한 것이다.

5. 瓜蒂散 임상

瓜蒂散의 경험례

姓名	임 00
性別	여
年齡	40
職業	주부
主訴症	젓은 식체 후 현훈두통, 흉만불면, 전신통
脉	침치, 활약
胃氣	평소 소화기능 약함.
形象	신냉, 중기부족
治法	瓜蒂散吐法
治療經過	瓜蒂散을 투여함, 吐法을 시행한 후에 현훈, 두통, 흉만 등이 좋아졌다.
治療說明	『東醫寶鑑·雜病篇·吐門·病在上宜吐』에서는 “『內經』에 ‘위에 있는 病은 끌어 넘겨야 한다.’고 써어 있다. 넘긴다는 것은 吐하게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儒門事親 권십일 論火熱二門』 등 에서도 내경의 상기조문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환자는 평소 중기부족이 있으며, 身冷하므로 瓜蒂散에 補中益氣하는 人蔘이 들어있으므로 瓜蒂散을 사용하였다.

6. 防風通聖散 임상

6-1. 防風通聖散의 張從正 의안

■ 防風通聖散

<처방>

防風 川芎 當歸 芍藥 大黃 薄荷 麻黃(去根不去節) 連翹 芒硝 以上各半兩 石膏 黃芩 桔梗 已上各二兩 滑石三兩 甘草二兩 荊芥 白朮 山梔子 已上各一兩

右爲蠶末 每服五七錢 水一大盞 生薑三片 煎至七分 去滓 熱服 如涎嗽 加半夏五錢 生薑製過

방풍 천궁 당귀 작약 대황 박하 마황(뿌리를 제거하고 마디를 제거하지 않은 것) 연교 망초 위의 약들을 각각 반냥씩, 석고 황금 길경 위의 약들을 각각 두 냥씩, 활석 세냥, 감초 두냥, 형개 백출 산치자 위의 약들을 각각 한냥씩.

이상의 약들을 거칠게 가루내어 매번 5~7돈씩 물 큰 대접에 생강 세 쪽을 넣고 칠 분이 될 때 까지 끓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뜨겁게 복용한다. 涎嗽가 있으면 반하 다섯 돈을 더하고 생강으로 지나침을 억제한다.

<의안>

凡在表者皆可汗式十五 / 卷之二

又治一酒病人 頭痛, 身熱, 惡寒 狀類傷寒. 診其脈 兩手俱洪大 三, 兩日不圍. 余以防風通聖散 約一兩 用水一中椀 生薑二十餘片 葱鬚根二十莖 豆豉一大撮 同煎三五沸 去滓 稍熱 分作二服. 先服一服多 半. 須臾 以釵股探引咽中 吐出宿酒 酒之香味尚然 約一兩杓 頭上汗出如洗. 次服少半 立愈.

어떤 술병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다. 頭痛, 身熱, 惡寒하여 그 양상이 傷寒과 유사하였다. 환자의 脈을 살펴보니 양쪽이 모두 洪大하고 사흘 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하였다. 이에 防風通聖散을 한 냥 정도 물 中椀에 생강 이십여 조각, 파뿌리 이십여 대를 넣고 두시 한 주먹과 함께 삼오차례 끓인 후 찌꺼기를 버리고 뜨거운 기가 가신 상태로 두 번에 나누어 복용하게 하였다. 먼저 반이 좀 넘게 마시게 하고는 바로 비녀로 목구멍에 탐색시키니 목은 술을 토하는데 술의 냉새가 여전하였다. 대략 한 자루를 토하고 머리 위로 세수하듯 땀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남은 반을 복용하게 하니 바로 나왔다.

<해설>

주독으로 인해 내열이 울결된지 삼일 밖에 안되었으며 아직 병사가 상초에 머문 상태이다. 頭痛, 身熱, 惡寒의 증상이 傷寒과 유사한 것은 아직 병사가 상초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이다.

內熱이 鬱結된 것을 치료하는 防風通聖散을 사용하였다. 生薑, 파뿌리, 두시등을 사용하여 發汗시켜서 표사를 몰아낸 것이다. 吐法과 汗法을 같이 사용한 좋은 임상예이다.

6-2. 防風通聖散의 경험례

防風通聖散의 경험례 1

姓名	장 00
性別	어제 저녁부터 심하게 어지럽고 두통이 있어서 누워있기도 힘들다.
年齡	면구, 목적,
職業	浮滑, 상초실
主訴症	남
脉	39
胃氣	영업
形象	평소는 잘 되었으나 오늘은 헛구역질이 난다.
治法	防風通聖散으로 吐法 시행후 防風通聖散으로 汗法을 사용하였다
治療經過	우선 吐法을 한차례 시행한 후에 병증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 그러나 잠시후 다시 상기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防風通聖散으로 汗法을 시행한 후에 다음날 병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번 더 吐法과 汗法을 시행한 후에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

治療說明	面赤하고 脈이 浮滑한 증과 머리부위에 병이 집중된 것은 吐法을 사용할 수있는 근거가 된다. 병이 상부에 있는 것은 끌러 올려내는 것이 더욱 좋기 때문이다. 面赤에 目赤한 것은 內熱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內熱을 해결하면서 상부의 병증 끌어올려 내기 위해 防風通聖散으로 토법을 사용하였다.
------	---

防風通聖散의 경험례 2

姓名	권00
性別	어제 오후부터 신열이 나고 인통이 있으면서 콧물이 난다.
年齡	面赤
職業	寸脈 浮實
主訴症	어
脉	32
胃氣	서비스업
形象	잘된다
治法	防風通聖散으로 吐法 시행후 防風通聖散으로 汗法을 사용하였다
治療經過	우선 吐法을 한차례 시행한 후에 병증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 防風通聖散으로 汗法을 시행한 후에 다음날 병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3회 汗法을 추가 시행한 후에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
治療說明	병증이 상한초기인 데다가 寸脈이 浮實한 것은 상초에 사기가 머물러 있는 증거이다. 상초에 병증이 있으므로 吐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發汗法을 사용하여 표사를 몰아내었다.

7. 吐法 요약

吐法을 시행할 수 있는 임상적 핵심은 ‘病이 上焦에 있을 때에는 吐法을 사용한다.’

라는 원칙이다. 病邪가 인체의 상부에 있는 정황에 吐法을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몸에서는 胸부위 이상이 상부에 속하므로 머리, 눈 등과 胸에 病이 들은 것들도 吐法으로 치유할 수 있다. “胸中有痰實”, “心火”가 오래되어 “熱痰”이 된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인체의 上部에 病이 든 것은 吐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吐法 운용의 기본 원칙이 된다.

吐法을 사용했던 처방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獨聖散은 辛涼한 방법의 吐法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였다.

三聖散은 辛溫한 방법의 吐法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였다.

瓜蒂散은 三聖散의 증에 중기가 약한 경우에 사용하였다.

防風通聖散은 外邪의 공격을 받아 內熱이 鬱結되어 있는 경우와 防風通聖散의 病證을

갖고 있는 정황에 사용하였다.

[參考文獻]

- 許 浚. 『原本 東醫寶鑑』, 남산당, 서울, 1991.
- 張子和, 『儒門事親』, 대성문화사, 서울, 1993.
- 張從正. 『儒門事親』,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98.
- 鄧鐵濤. 『子和醫集』, 인민위생출판사, 북경, 1994.
- 肖國綱. 『儒門事親研究』, 中醫古籍出版社, 북경, 1998.
- 劉更生, 儒門事親, 천진과학기술출판, 천진, 2000.
- 徐江雁외, 張子和醫學全書, 중국중의약출판사, 북경, 2006.
- 김남일의. 『강좌중국의학사』, 대성의학사, 고양, 2006.
- 홍원식. 『中國醫學史』,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7.
- 金元四大家醫學全書(上,下), 천진과학기술출판사, 천진, 1999.
- 맹용재·김남일 등,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서울, 2001.
- 김남일의, 『한권으로 읽는 東醫寶鑑』, 들녘, 서울, 1999.
- 王水註. 『黃帝內經』, 대성출판사, 서울, 1985
-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1.
-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1.
- 宋隆燮·洪元植, 張從正의 生涯와 醫學思想, 慶熙韓醫大論文集 Vol.9, 1986
- 鄭 勉, 金元四大家 의학이 朝鮮朝醫學형성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 權學澈·朴贊國, 東醫寶鑑을 통한 허준의 의학사상에 관한 고찰, 대한원전 의사학회지 Vol.6, 1992
-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조정원, 동양의학대사전, 경희대학교출판국, 서울, 1999.
- 한의학대사전 의사문헌편,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서울, 1985.
- 한의학대사전 기초이론편,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서울, 1985.